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국회 대표실에서 분당을 보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선 '손학규 출마'로 예측불허 혼전

분당 을 출마 선언… 여권선 정운찬 카드 재부상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경기 성남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결단을 내리면서 4·27 재보선이 예측불허의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에게 분당 출마는 정치적 명운을 건 모험으로 풀이된다. 보선 결과가 손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수 있는데다 차기 대권경쟁 등 야권 지형 전체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파괴력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당을 위한 희생'에 방점을 둔 정면 승부로 큰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손 대표의 이 같은 분당 출마로 이번 재보선의 성격과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대선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한나라당도 손 대표에 맞설 '전략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권 핵심부는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에 따라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전략공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의원은 "분당 주민은 손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보는 게 아니라 대권 후보로 바라볼 것"이라며 "따라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정 전 총리가 대항마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분당을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면서 "분당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적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이 분당을 보선에서 정 전 총리를 전략 카드로 내세울 경우 '손학규-정운찬'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재보선의 전체 판세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당을 선거가 강원지사와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를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재보선 승패를 가름하는 '저울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정 전 총리 출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다 예비후보로 나선 강재섭 전 대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사람도 공심위에 외압을 넣어서는 안 되며, 밀실에서 음모를 진행한다면 한나라당과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제 정치인생을 걸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전 총리도 좋고 대한민국 누구도 좋으니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통해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소위 실세, 당 지도부 일부는 조직적이고 끈질긴 정치적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공천심사위원은 "손 대표가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분당을 실사에 나섰다"면서 "실사 결과 낙하산은 안 된다는 기류가 많아 정 전 총리 카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당내의 또 다른 기류를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고위원 실패 유선호 의원 원내대표 도전

김진표·김부겸·강봉균 등도 … 혼전 양상

민주당 유선호 의원(영암·장흥·강진)이 정치적 미래를 걸고 원내대표 도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선의 유선호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펼쳐진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탈락,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좋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정치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어 차기 총선도 장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주자들은 유선호, 김진표, 김부겸, 강봉균 의원 등이 꼽히고 있으며 전체적인 판세는 어느 한 명의 독주 체제보다는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인권변호사를 지낸 유 의원은 정통 민주세력 출신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에 강점이 있는데다 특유의 친화력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원내대표 선거전에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내 재야파 모임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이 유 의원을 적극 지원한다면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선호 의원

유 의원 측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인기 의원 화순군수 보선 "고민되네"

무소속 후보에 패배 땐 내년 총선 악영향

화순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인기 민주당 의원(화순·나주)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보궐선거 승리를 견인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구충곤 후보가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한 전완준 전 군수에게 완패하는 등 최근 민주당의 조직력이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개인적인 조직력도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보다 약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화순군수 보궐선거마저 무소속 후보에게 또 다시 패배한다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3선을 노리고 있는 최 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연이은 선거 패배는 화순 지역구 위원장인 최 의원에 대한 '책임론' 등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형준·전완준 전 군수 등 '형제 군수'가 모두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는 점에서 최 의원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의 눈초리도 곱지만은 않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변화를 바라는 화순 민심이 결국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견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화순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이상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화순 민심의 흐름에 맞고 화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정치권 분노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결론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면서 여권의 자중지란이 심화되는가 하면 영남 민심이 폭발하는 등 후폭풍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차기 총선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여당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차기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다선 의원들은 '재보선 직후 조기 전당대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집단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에 나서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영남지역 모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표를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여권 핵심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해 날을 세우는 한편 영남권 민심 동향과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헌신짝처럼 던졌다"며 "부적합한 것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 신공항 예정 도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근기 화순부군수 대기 발령

후임에 민종기 사회복지과장

군수 재선거를 위한 정당 후보경선에 나서기 위해 사직원을 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임근기 화순부군수가 대기 발령 조치됐다.

전남도는 30일 군수 재선거에 나서기 위해 27일 사직원을 제출했다 하루만에 번복한 임근기 화순 부군수를 대기발령 시키고 민종기 사회복지과장을 후임 부군수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임 전 부군수는 지난 24일 화순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사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27일 사직원을 화순군에 냈으나 28일 오전 이를 번복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도의회, 영암호 통선문 검증 나선다

영암호 통선문(通船門·방조제 등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문) 설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남도의회가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전남도의회 영산강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탁 의원)는 30일 도의회에서 정부와 전남도의 영암호 통선문 설치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거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영산강 특위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보는 시각이 전남도와 시민단체, 종교계간에 차이가 큰 만큼 대의기관으로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구성됐다.

특위 위원들은 특히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사업'이라는 찬성측 주장과 '정부의 운하 사업의 신호탄'이라는 반대측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 및 타당성 점검을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탁 의원은 "통선물 설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영산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전남도는 최근 영암호에 폭 20m·길이 70m 규모의 통선문을 설치, 1000t급 여객선과 500t급 관광유람선이 영암호에서 죽산보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2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목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8,757,757,807
(1)당좌자산	4,727,302,718
현금	4,455,720
보통예금	759,940,647
정기예.적금	285,455,756
외상매출금	2,875,685,765
대손충당금	28,756,857
받을어음	34,395,900
대손충당금	343,959
미수수익	7,049,458
미수금	484,161,985
대손충당금	7,448,320
할부미수금	254,100,000
대손충당금	51,546,000
선급금	56,865,291
선급비용	26,893,793
파생금융상품자산	26,393,539
(2)재고자산	4,030,455,089
제품	147,000,000
원재료	644,201,424
저장품	93,430,000
할부제품	3,145,823,665
재공품	0
Ⅱ. 비유동자산	8,165,714,793
(1)투자자산	227,959,000
장기성예금	0
특정현금과예금	2,000,000
투자유가증권	200,000,000
예치보증금	25,959,000
(2)유형자산	7,540,469,066
토지	1,991,010,000
건물	3,997,928,953
감가상각누계액	312,883,108
구축물	724,995,957
감가상각누계액	87,733,550
기계장치	2,056,376,034
감가상각누계액	1,316,517,458
차량운반구	461,517,396
감가상각누계액	313,894,200
공구와기구	38,288,490
감가상각누계액	33,052,121
비품	406,828,536
감가상각누계액	301,195,444
건설중인자산	0
시설장치	96,608,282
감가상각누계액	39,808,701
조경용수목	172,000,000
(3)무형자산	178,884,236

과목	금액
특허권	25,004,770
해외특허권	4,960,239
개발비	126,259,651
소프트웨어	22,659,576
(4)기타비유동자산	218,402,491
임차보증금	95,050,000
제보증금	550,000
전신전화가입권	521,690
장기보험예치금	122,280,801
자산총계	16,923,472,600
부채	
Ⅰ. 유동부채	8,361,854,012
외상매입금	766,096,000
지급어음	1,116,912,989
미지급금	271,974,395
예수금	57,891,040
선수금	418,000,000
단기차입금	5,337,025,407
미지급법인세	929,970
미지급비용	241,322,731
유동성장기부채	151,701,480
Ⅱ. 비유동부채	1,670,209,464
장기차입금	1,2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829,203,303
퇴직연금운영자산	772,615,907
퇴직보험예치금	56,587,396
외화장기차입금	0
하자보수충당부채	163,622,068
손해배상충당금	200,000,000
부채총계	10,032,063,476
자본	
Ⅰ. 자본금	1,500,000,000
자본금	1,500,000,000
Ⅱ. 자본잉여금	0
Ⅲ. 자본조정	△5,127,967
주식할인발행차금	△5,127,967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393,539
파생상품평가이익	26,393,539
Ⅴ. 이익잉여금	5,370,143,552
이익준비금	515,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4,855,143,552
(당기순이익)	
당기:1,621,987,258원	
전기:2,239,678,793원	
자본총계	6,891,409,124
부채와자본총계	16,923,472,600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3월 31일

라인호(주)

대표이사 라이너신라이히

감사의견: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12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431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공인회계사 김동규, 송경식, 강창원

제6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목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601,520,218
(1)당좌자산	595,715,218
현금	3,226,564
보통예금	220,905,232
기타제예금	4,760
정기예.적금	6,000,000
기타단기금융상품	96,249,456
외상매출금	245,958,476
선급금	5,982,550
선급비용	17,388,180
(2)재고자산	5,805,000
상품	4,680,000
제품	0
원재료	1,125,000
Ⅱ. 비유동자산	1,371,151,948
(1)투자자산	0
퇴직보험예치금	0
(2)유형자산	1,194,947,563
건물	459,215,763
감가상각누계액	34,441,179
구축물	13,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105,416
기계장치	1,301,387,724
감가상각누계액	727,333,133
차량운반구	194,707,315
감가상각누계액	81,535,950
공구와기구	1,633,800
감가상각누계액	1,303,013
비품	105,719,337
감가상각누계액	35,497,685
건설중인자산	0
(3)무형자산	2,240,000
특허권	2,240,000
(4)기타비유동자산	173,964,385
임차보증금	10,000,000
기타보증금	500,000
토지보증금	131,968,930
회원권	31,495,455
자산총계	1,972,672,166

과목	금액
부채	
Ⅰ. 유동부채	756,758,568
외상매입금	123,071,388
지급어음	189,418,581
미지급금	88,155,165
예수금	2,801,280
부가세예수금	43,864,060
가수금	245,411,000
선수금	51,364,000
단기차입금	315,422
미지급세금	12,357,672
Ⅱ. 비유동부채	100,000,000
장기차입금	100,000,000
부채총계	856,758,568
자본	
Ⅰ. 자본금	800,000,000
자본금	800,000,000
Ⅱ. 자본잉여금	0
Ⅲ. 자본조정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	0
Ⅴ. 이익잉여금	315,913,598
미처분이익잉여금	315,913,598
(당기순이익)	
당기:168,241,051원	
전기:61,835,087원	
자본총계	1,115,913,598
부채와자본총계	1,972,672,166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3월 31일

(주)와이씨씨

대표이사 조순걸

제7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1,292,754,290
(1)당좌자산	1,292,754,290
1.현금및현금성자산	28,868,870
2.단기금융상품	633,353,050
3.미수금	540,543,100
4.선급비용	86,239,340
5.미수법인세환급액	3,749,930
Ⅱ. 비유동자산	137,901,052,118
(1)유형자산	136,508,451
1.기계장치	60,424,545
감가상각누계액	△42,365,415
2.차량운반구	547,163,427
감가상각누계액	△485,726,678
3.공구와기구	14,8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995,322
4.비품	141,375,816
감가상각누계액	△126,179,194
5.시설장치	229,909,091
감가상각누계액	△189,897,819
(2)무형자산	137,680,673,492
1.관리운영권	168,753,092,251
국고보조금	△31,186,153,385
2.임차자산개량권	113,734,626
(3)기타비유동자산	83,870,175
1.보증금	83,870,175
자산총계	139,193,806,408

계정과목	금액
부채	
Ⅰ. 유동부채	7,451,908,937
1.미지급금	6,581,900
2.예수금	254,246,050
3.부가세예수금	336,375,373
4.단기차입금	3,100,000,000
5.미지급비용	54,705,614
6.유동성장기부채	3,700,000,000
Ⅱ.비유동부채	102,709,063,156
1.장기차입금	102,675,000,000
2.퇴직급여충당부채	34,063,156
부채총계	110,160,972,093
자본	
Ⅰ.자본금	50,091,000,000
1.보통주자본금	50,091,000,000
Ⅱ.자본잉여금	
Ⅲ.자본조정	△262,270,710
1.주식할인발행차금	△262,270,71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결손금	△20,795,894,975
1.미처리결손금	△20,795,894,975
(당기순손실 : 1,880,991,425원)	
자본총계	29,032,834,315
부채와자본총계	139,193,806,408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3월 31일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정 균

감사의견: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7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성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남용